

##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손수경<sup>1)</sup> 장유나<sup>2)</sup> 노주성<sup>3)</sup> 홍세희<sup>4)</sup>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평균 만 3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패턴을 알아보고, 부와 모가 인식한 부 양육참여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종단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 양육스트레스는 변화가 없었고, 모 양육스트레스, 부와 모의 우울은 선형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신과 상대자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과 상대자의 우울을 증가시켰다. 셋째, 모 양육스트레스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사람은 우울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넷째,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는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이를 매개로 자신과 배우자의 우울도 감소시켰다. 연구결과를 통해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도 종단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부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우울, 상호의존모형, 잠재성장모형, 한국아동패널

1)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연구실(KEMS) 박사과정

2)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연구실(KEMS) 석사과정

3)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연구실(KEMS) 석사과정

4)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우리나라 아버지의 전통적 역할은 생계에 대한 책임으로 가부장제도 하의 권위적 모습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최근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되고 있다(이숙희·고인숙·최향숙, 2003).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에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Lamb, 2004; McBride, Schoppe, & Rane, 2002).

먼저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Deater-Deckard, 1998),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Huth-Bocks & Hughes, 2008), 부모의 우울감도 증가시킨다는 점(김근혜·김현정·이완정, 2014; 김미예·박동영, 2009; 문영경, 2012; 이운주·김진숙, 2012; Deater-Deckard, 1998)에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기원, 2009; 김근혜·김혜순, 2013; 노성향, 2014; 박성덕·서연실, 2016; 서석원·이대균, 2014; 안재진, 2011; 이정순, 2003; 최효식·연은모·권수진·홍윤정, 2013; Crnic & Greenberg, 1990; McBride, Schoppe, & Rane, 2002; Quittner, Glueckauf, & Jackson, 1990; Roggman, Moe, & Hart, 1994).

안재진(2011)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관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김근혜와 김혜순(2013)도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형 중에서도 여가활동, 가사활동, 인지적 성취지도보다 생활지도형 참여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서석원과 이대균(2014)은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낮추고 이를 매개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효식 외(2013)는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초기시점인 자녀가 1세 일 때, 어머니가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어머니의 초기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인식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문혁준, 2004; 옥경희·천희영, 2012; 연은모·최효식·윤해옥, 2015b; 이정순, 2003; Arditti & Bickley, 1996; 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 옥경희·천희영(2012)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나 부부관계를 통제된 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문혁준(2004)은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목욕, 수유 등의 신체적이고 일상적인 양육 지원을 하기보다 자녀 습관 및 놀이 지도와 같은 보조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연은모 외(2015b)는 한국아동패널 1차~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한 결과, 이전시점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간의 관계는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와 모의 우울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감소에 남편의 양육참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Fletcher, 2009; Mezulis, Hyde, & Clark, 2004; Misri, Kostaras, Fox, & Kostaras, 2000)들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우울 사이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김진경, 2014; 서미정, 2011; 서정아·엄정애, 2016; 임현주·최향준·최선녀, 2012; 허보윤·한경자, 2009). 허보윤과 한경자(2009)는 ANOVA 분석과 사후검사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에 차이가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서정아와 엄정애(2016)는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효과를 회귀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을 유의미하게 낮추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우울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진경(2014)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인의 결혼만족도 간에 부인의 우울감이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서미정(2011)은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Bronte-Tinkew, Moore, Matthews와 Carrano(2007)는 아버지 자신이 평가한 양육참여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우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우울과도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스스로를 위축하게 만들어서 우울이나 불안감을 높인다(문영경, 2012; 이윤주·김진숙, 2012; Gove & Hughes, 1979; Mercer, 1985).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여 왔고(권정혜, 1996; 김미예·박동영, 2009; 이정윤·장미경, 2008; 조복희·양미선, 2001),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문영경, 2012; 연은모·윤해옥·최효식, 2015a; 이윤주·김진숙, 2012). 문영경(2012)은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윤주와 김진숙(2012)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그 관계를 매개하고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연은모 외(2015a)는 한국아동패널 1차부터 4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이후 시점의 우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부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그 관계는 부와 모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으며,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은 어머니가 지각한 변인들 간의 관계 검증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아버지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Bronte-Tinkew et al., 2007; Ramchandani & Psychogiou,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양진희·김영철, 2016), 아버지의 우울은 유아의 정서 및 행동에 어머니의 우울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Weitzman, Rosenthal, & Liu, 2011), 그 정도 또한 어머니의 우울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app, 2012). 따라서 아버지와 관련한 변인도 어머니와 같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부 양육참여와 관련해서 어머니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와 아버지 본인이 지각한 양육참여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와 모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의 적용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인지한 부 양육참여는 아버지가 실제 자녀 양육에 참여한 것보다 양육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김은지·전귀연, 2016), 이로 인해 자신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예로써, 최효식·윤해옥·연은모(2015)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어머니가 더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갈등이 낮아짐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 양육참여에 대해 부와 모 각자가 지각하는 질적인 차이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부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하 APIM)을 사용하였다. APIM 모형은 최근 행동과학 분야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형으로, 커플 자료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이 많은 관계(예: 부부, 쌍둥이)에서 개인의 특성이 상대자 뿐 아니라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그 관계의 역동성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Cook & Kenny, 2005). 커플 자료와 같이 상호의존성이 있는 자료를 독립적인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하면 1종 오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므로, 모형에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Cook & Kenny, 2005; Kenny, Kashy, & Cook, 2006).

또한 이러한 관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단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였다. 커플 자료를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은 두 개인 간에 관심 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ashy, Donnellan, Burt, & McGue,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가 인식한 부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커플 자료를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부와 모가 인식한 부 양육참여가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녀 성장에 따른 시간적 변화에서 부와 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우울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종단적 관점에서 부와 모가 인식한 부 양육참여는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와 모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가 유의한가?
- 연구문제 3. 부와 모가 인식한 부 양육참여는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부와 모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4차년도~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 양육참여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는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각각 4차년도~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표집 인원은 총 2,150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의 평균 연령은 4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36.3세~38.6세, 모의 평균 연령은 33.8세~36.1세, 그리고 자녀의 평균 월령은 38.8개월~62.7개월이다. 즉, 자료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시기의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24개월까지의 영아기는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주위 도움 없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기로 부모가 육체적으로 더 힘들고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인 반면, 유아기의 부모는 영아기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육활동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김상하, 1998; Barnett & Baruch, 1987).

### 2. 주요변인

#### 가. 부와 모가 인식한 부 양육참여

부와 모가 인식한 부 양육참여(이하 '부' 양육참여, '모' 부 양육참여로 통칭함)는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남편의 가족역할수행 도구를 수정한 아동패널 검사도구가 사용되었다. 남편의 가족역할수행 도구는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친족 역할, 가

사분담자 역할, 가게 경제관리 역할, 부양자 역할, 대외적 역할의 7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도구의 하위영역중 ‘배우자 역할’에서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이다. 문항 내용은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나는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등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부 양육참여가 .736,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809로 나타났다.

#### 나.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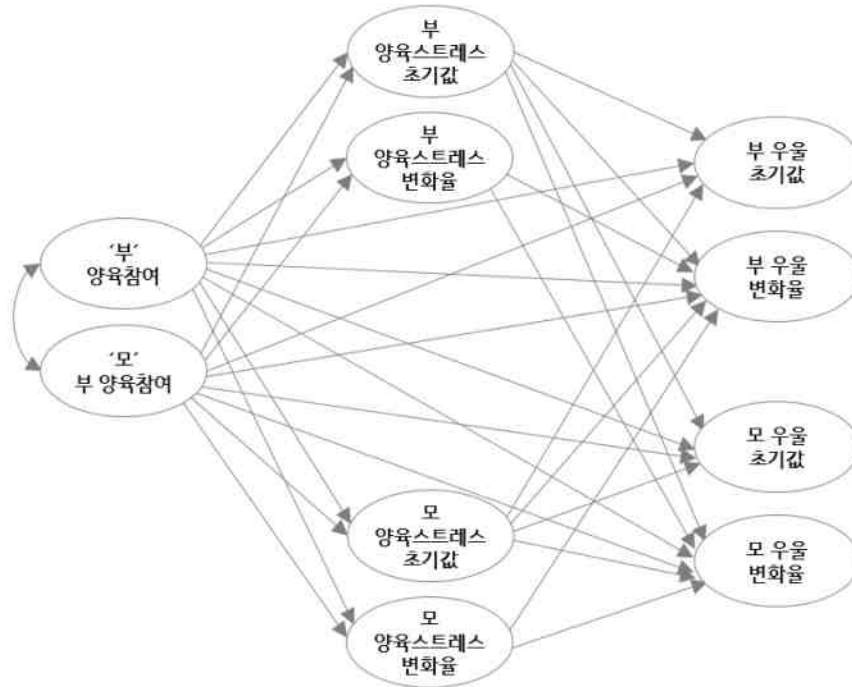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4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동일하게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중 11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내용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등이 있다.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4차부터 6차까지 부 양육스트레스가 .849, .860, .919이며 모 양육스트레스가 .874, .881, .874로 나타났다.

#### 다. 부와 모의 우울

부와 모의 우울은 Kessler K6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4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총 6문항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안 느낌=1, 항상 느낌=5)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으로는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등이다. Cronbach  $\alpha$  값은 4차부터 6차까지 부 우울의 신뢰도가 .916, .911, .914이며, 모 우울의 신뢰도가 .913, .921, .866로 나타났다.

### 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 4. 분석 방법

커플 자료를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은 일반적인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과 동일하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종단 자료를 사용한 각 변인(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기초적인 변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변인 간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의 검증으로 관심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모형의 검증은 Mplus 7.0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Bollen & Stine, 1990; Mallinicrodt, Abraham, Wei, & Russell, 2006).

모수치의 추정방법으로 결측치 처리를 위해 FIML(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 TLI, CFI, RMSEA 지수를 검토하였다.  $\chi^2$ 는 표본수에 민감하여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



어,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력에 대해 좋은 적합도 지수로 알려져 있는 TLI, CFI, RMSEA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 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적절한 적합도, .1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 Ⅲ.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4차년도의 부양육참여는 3.62, 모가 지각한 부양육참여는 3.61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 부양육스트레스는 4차년도 2.46, 5차년도 2.40, 6차년도 2.44로 감소하다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모양육스트레스는 4차년도 2.79, 5차년도 2.73, 6차년도 2.65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부우울도 4차년도 1.88, 5차년도 1.86, 6차년도 1.83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모우울도 마찬가지로 4차년도 1.98, 5차년도 1.96, 6차년도 1.94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각 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변인들이 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표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인명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 양육참여(4차년도)	1,624	1.00	5.00	3.62	.65	-.20	.24
‘모’ 부 양육참여(4차년도)	1,697	1.00	5.00	3.61	.81	-.27	-.37
부 양육스트레스(4차년도)	1,626	1.00	4.64	2.46	.59	-.05	-.17
부 양육스트레스(5차년도)	1,613	1.00	4.73	2.40	.60	.04	-.00
부 양육스트레스(6차년도)	1,543	1.00	4.36	2.44	.60	.05	-.06
모 양육스트레스(4차년도)	1,702	1.00	5.00	2.79	.64	.01	.02
모 양육스트레스(5차년도)	1,676	1.00	4.82	2.73	.66	.09	-.03
모 양육스트레스(6차년도)	1,614	1.00	4.82	2.65	.62	.05	.15
부 우울(4차년도)	1,625	1.00	5.00	1.88	.70	.82	1.01
부 우울(5차년도)	1,608	1.00	5.00	1.86	.67	.69	.65
부 우울(6차년도)	1,542	1.00	4.67	1.83	.66	.66	.45
모 우울(4차년도)	1,702	1.00	5.00	1.98	.75	.68	.43

(표 1 계속)

변인명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모 우울(5차년도)	1,673	1.00	5.00	1.96	.75	.72	.54
모 우울(6차년도)	1,614	1.00	5.00	1.94	.74	.79	.88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양육참여와 우울의 관계는 -.11 ~ -.35의 부정 상관을 보였으며, 스트레스와 우울은 .16 ~ .55의 상관을 보였다. 특히 같은 대상의 동일한 차시에서 상관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부' 양육참여(4차)	1													
2. '모' 부 양육참여(4차)	.56	1												
3. 부 양육스트레스(4차)	-.35	-.27	1											
4. 부 양육스트레스(5차)	-.28	-.21	.50	1										
5. 부 양육스트레스(6차)	-.25	-.19	.49	.55	1									
6. 모 양육스트레스(4차)	-.19	-.24	.36	.29	.28	1								
7. 모 양육스트레스(5차)	-.17	-.19	.32	.41	.34	.68	1							
8. 모 양육스트레스(6차)	-.14	-.16	.28	.36	.43	.63	.68	1						
9. 부 우울(4차)	-.24	-.21	.43	.30	.28	.21	.18	.16	1					
10. 부 우울(5차)	-.19	-.18	.30	.46	.31	.20	.25	.23	.45	1				
11. 부 우울(6차)	-.19	-.20	.28	.32	.49	.18	.21	.27	.37	.44	1			
12. 모 우울(4차)	-.17	-.25	.26	.24	.21	.48	.42	.39	.39	.29	.23	1		
13. 모 우울(5차)	-.13	-.20	.19	.29	.23	.42	.55	.46	.22	.35	.24	.56	1	
14. 모 우울(6차)	-.11	-.18	.17	.24	.29	.36	.39	.55	.19	.22	.37	.46	.55	1

## 2. 변화 분석모형의 비교와 검토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를 추정함에 있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변화함수를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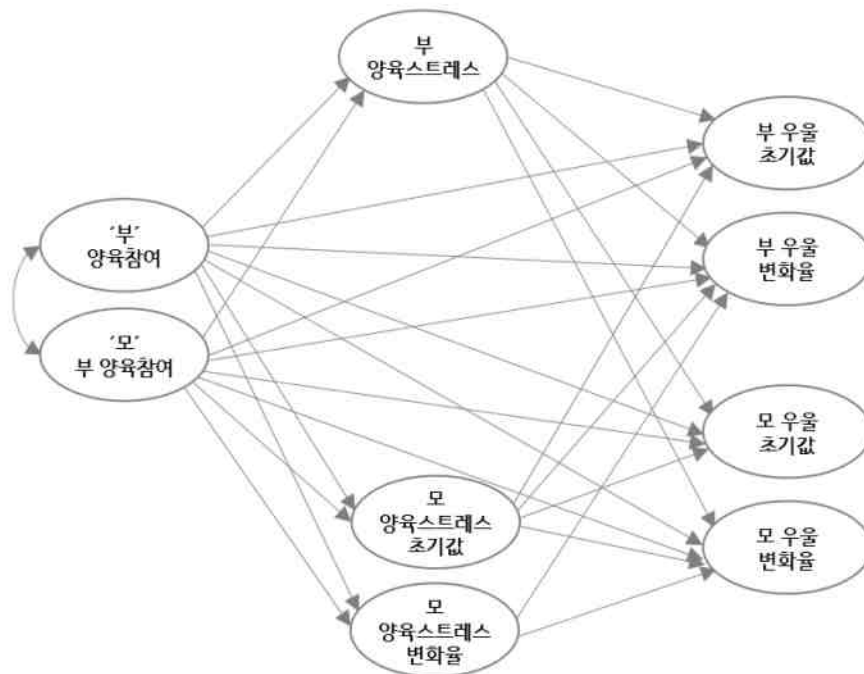
모 양육스트레스와 부 우울, 모 우울 변인에 대해서는 각  $\Delta\chi^2$ 이 기준값인  $\chi^2_{0.5}(3) = 7.815$ 보다 크므로 선형모형이 유의하게  $\chi^2$ 값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LI, CFI 값이 선형모형에서 더 크고, RMSEA 값이 선형모형에서 더 작아 무변화 모형보다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 양육스트레스 변인은 선형모형에서  $\chi^2$ 값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CFI 값

이 더 컸으나, TLI는 작아지고 RMSEA는 더 커져 무변화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해석하였다. 따라서 최종모형에서 부 양육스트레스는 무변화 모형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표 3〉 각 변인의 변화 분석모형 분석 결과

변인명	변화 분석모형	$\chi^2$	df	p	TLI	CFI	RMSEA
부 양육스트레스	무변화	26.020	4	.000	.969	.979	.051
	선형변화	16.095	1	.000	.915	.986	.084
모 양육스트레스	무변화	137.390	4	.000	.905	.937	.125
	선형변화	1.338	1	.247	.999	1.000	.013
부 우울	무변화	15.230	4	.004	.976	.984	.036
	선형변화	1.297	1	.255	.997	1.000	.012
모 우울	무변화	28.778	4	.000	.970	.980	.054
	선형변화	.007	1	.932	1.005	1.000	.000



[그림 2] 최종모형

각 변인의 변화모형 추정치는 <표 4>와 같다.

부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추정치가 2.43,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는 2.79로 나타났고, 부 우울은 1.88, 모 우울은 1.98로 모 우울의 초기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이 모두 유의하여, 초기치에서 개인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에서는 부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 양육스트레스, 부 우울과 모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여,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모두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므로 각 변인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변인의 모형 추정치

변인명	I(초기치)		S(변화율)		I(초기치)-S(변화율)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부 양육스트레스	2.434***	.183***	-	-	-
모 양육스트레스	2.793***	.321***	-.073***	.031***	-.036***
부 우울	1.881***	.249***	-.022*	.030**	-.037**
모 우울	1.982***	.377***	-.022*	.056***	-.062***

주: 부 양육스트레스는 무변화 모형이므로 4차년도~6차년도의 평균과 분산 추정치를 의미함.

\*\*\*  $p < .001$ , \*\*  $p < .01$ , \*  $p < .05$

### 3. 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그림 2]의 연구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TLI는 .932, CFI는 .950, RMSEA는 .053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표 5> 연구 모형의 적합도

$\chi^2(df)$	$p$	TLI	CFI	RMSEA
14569.260(190)	.000	.932	.950	.053

최종 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6>과 같다. APIM에서는 자신에 대한 효과를 ‘행위자 효과(actor effect)’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주는 효과를 ‘상대자 효과(partner effect)’라고 하므로(홍세희, 2014), 이를 기반으로 추정치들을 해석하였다.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부 양육스트레스와 모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에 미치는 효과는 부와 모의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 양육스트레스와 모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는 낮아졌고(부 행위자 효과와 부 상대자 효과),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치와 부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모 행위자 효과와 모 상대자 효과)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우울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모의 행위자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모 우울 초기치는 낮아졌고(모 행위자 효과), 부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참여는 부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참여는 모 우울 초기치에,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는 부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양육스트레스와 모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가 우울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부와 모의 행위자 효과와 부의 상대자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 우울 초기치와 모 우울 초기치가 증가하였고(부 행위자 효과와 부 상대자 효과),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을수록 모 우울 초기치가 증가하였다(모 행위자 효과). 그러나 모 양육스트레스는 부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는 모의 행위자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모 행위자 효과). 이는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모 양육스트레스가 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 양육스트레스 초기치가 이미 낮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소하는 폭도 작아진 것을 의미한다.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우울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부의 행위자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 우울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부 행위자 효과). 이는 부 우울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신의 우울이 더 완만하게 감소한 것을 나타낸다. 즉,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 우울의 초기치가 이미 낮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소하는 폭도 작아진 것을 의미한다.

부 양육스트레스와 모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우울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부와 모의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이 우울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모의 행위자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이 높아지면 모 우울 변화율도 증가하였다(모 행위자 효과). 이는 모 양육스트레스 감소가 클수록 자신의 우울의 감소도 큼을 의미한다.

〈표 6〉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부' 양육참여 → 부 양육스트레스	-.442***	.051	-.437
'부' 양육참여 → 모 양육스트레스 I	-.139*	.056	-.104
'모' 부 양육참여 → 모 양육스트레스 I	-.254***	.040	-.243
'모' 부 양육참여 → 부 양육스트레스	-.082*	.032	-.104
'부' 양육참여 → 모 양육스트레스 S	-.025	.025	-.068
'모' 부 양육참여 → 모 양육스트레스 S	.052**	.018	.182
'부' 양육참여 → 부 우울 I	-.010	.070	-.009
'부' 양육참여 → 모 우울 I	.072	.065	.051
'모' 부 양육참여 → 모 우울 I	-.145**	.046	-.133
'모' 부 양육참여 → 부 우울 I	-.050	.046	-.056
부 양육스트레스 → 부 우울 I	.787***	.078	.696
부 양육스트레스 → 모 우울 I	.138*	.066	.099
모 양육스트레스 I → 모 우울 I	.663***	.043	.633
모 양육스트레스 I → 부 우울 I	-.024	.044	-.029
'부' 양육참여 → 부 우울 S	.090*	.039	.238
'부' 양육참여 → 모 우울 S	.044	.046	.093
'모' 부 양육참여 → 모 우울 S	-.035	.037	-.095
'모' 부 양육참여 → 부 우울 S	-.040	.030	-.136
부 양육스트레스 → 부 우울 S	.023	.042	.061
부 양육스트레스 → 모 우울 S	-.065	.046	-.139
모 양육스트레스 I → 모 우울 S	.058	.037	.164
모 양육스트레스 I → 부 우울 S	.010	.028	.035
모 양육스트레스 S → 모 우울 S	1.336**	.414	1.028
모 양육스트레스 S → 부 우울 S	.152	.105	.146

주: I는 초기치, S는 변화율을 의미함.

\*\*\*  $p < .001$ , \*\*  $p < .01$ , \*  $p < .05$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부와 모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붓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 간 유의한 매개경로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다섯 개 경로에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

지 않아, 매개효과가 중단적으로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치 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는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우울 초기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는 상대자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상대자의 우울 초기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 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는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을 매개로 모 우울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모 우울 변화율의 감소량이 적음을 의미한다.

〈표 7〉 매개효과 검증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 양육참여	→부 양육스트레스	→부 우울 I	-.348***	.054	-.463	-.257
‘부’ 양육참여	→모 양육스트레스 I	→모 우울 I	-.092*	.037	-.187	-.016
‘모’ 부 양육참여	→모 양육스트레스 I	→모 우울 I	-.168***	.028	-.228	-.114
‘모’ 부 양육참여	→부 양육스트레스	→부 우울 I	-.065*	.027	-.117	-.018
‘모’ 부 양육참여	→모 양육스트레스 S	→모 우울 S	.069*	.034	.014	.139

주: I는 초기치, S는 변화율을 의미함.

\*\*\*  $p < .001$ , \*  $p < .05$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에서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월령 38.8개월~62.7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향후 3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중단적 관점에서 부와 모가 인식한 부 양육참여는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여 보았다. 또한 부와 모가 인식한 부 양육참여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신과 배우자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와 모의 우울이 자녀가 3년 동안 성장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 양육스트레스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양육스트레스와 부와 모의 우울은 선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43점으로 3년 동안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79점에서 매해 .07점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우울은 평균 1.88점에서 매해 .02점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 우울은 평균 1.98점에서 매해 .02점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모두 초기치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았다가 3년 뒤에는 그 차이가 작아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최효식 외(2013)에서 모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결과와는 다소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의 자녀의 연령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최효식 외(2013)에서는 만 5.6개월에서 만 25.8개월의 아이를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성장한 만 38.8개월에서 만 62.7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0~3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4~5세 자녀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양육스트레스가 더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유우영·최진아·이숙, 1998; Crnic & Booth, 1991), 유아를 둔 부모의 우울도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경험적 연구가 더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의 분산을 제외하고,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여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변수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적으로 나타나 초기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구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동일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가 유의하게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감소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부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변인들에서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상대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 간의 관계에서는 부와 모의 행위자 효과와 부와 모의 상대자 효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도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 양육참여와 우울의 초기치 간의 관계에서는 모의 행위자 효과만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모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신의 우울이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초기치 간 관계에서는 부와 모의 행위자 효과와 부의 상대자 효과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우울 뿐 아니라 아내의 우울도 높이는 반면, 모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우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 양육참여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고(김진경, 2014; 서정아·엄정애, 2016; 안재진, 2011; 옥경희·천희영, 2012; 이정순, 2003; 최효식 외, 2013, 허보윤·한경자, 2009).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문영경, 2012; 연은모 외, 2015a; 이윤주·김진숙, 2012)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가 대부분 어머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남편의 양육참여가 자신뿐 아니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과 아내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함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또한 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율 간 관계에서는 모의 행위자 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상대자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사람은 우울 역시 더 큰 폭 감소한다는 결과이다. 혹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람은 우울 역시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종단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균희 외, 2014; 연은모 외, 2015a). 반면 모의 상대자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이 남편의 우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효식·윤해옥·연은모(2016)가 본 연구와 같은 자료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이전 시점의 모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부 우울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인데, 최효식 외(2016)는 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모 양육스트레스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 우울에는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의 효과(행위자 효과)가 더 크므로 이를 같이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 양육스트레스는 선형변화 모형보다 무변화 모형이 더 적합하여 부 양육스트레스 변화율과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시점을 포함하는 종단연구로 이 관계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부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종단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와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가 낮고, 양육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을수록 자신의 우울 초기치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율 간에도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지각한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는 완만하게 감소하며, 양육스트레스가 완만하게 감소할수록 우울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초기치가 더 낮으므로,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보다는 항상 더 낮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보고하나, 그 기울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우임을 의미한다. 즉 초기치가 워낙 낮은 경우 감소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중단연구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이다. 그러나 부 우울의 변화율에는 부 양육참여의 직접효과만이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우울을 중단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자신이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와 모의 우울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 양육참여의 증가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부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부 양육참여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 양육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전과 달리 부부 맞벌이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의 양육참여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버지의 육아 참여시간은 여전히 맞벌이 아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연합뉴스, 2016.2.23.). 따라서 남성의 양육참여가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사회 풍토 조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남성 육아 휴직이나 탄력근무제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 스스로의 자기 지각을 의미한다(Johnson & Mash, 1989). 자녀를 양육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부모들은 자신이 양육 받았던 방법이나 알고 있는 지식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양육스트레스는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성주·김성길, 2013). 또한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ix, 1992; Letoumeau, 1981). 그러므로 양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부부 간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커플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부관계가 지닌 상호의존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사람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특히 부부는 배우자와 삶을 공유하면서 인지, 행동 정서 등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Kelley et al., 1983),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 및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와 모를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이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부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커플 자료가 횡단적으로 연구된 것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을 보다 확장했다는 데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자녀가 만 3세~5세인 부와 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시점에서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부 양육참여 이외에도 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와 모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특성 변인(노성향, 2014; 최향준·조수경·김미정, 2015)과 부부갈등(박성덕·서연실, 2016; 연은모 외, 2015a)과 같은 관계적 변인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도 고려하여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정혜(1996). 임신중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취약성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33-43.
- 김근희·김현정·이완정(2014). 발달위험군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중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333-346.
- 김근혜·김혜순(2013).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4), 111-129.
- 김기원(2009).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취업관련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배우자 지지의 중재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예·박동영(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15(4), 375-382.
- 김상하(1998). 아버지의 영아 양육참여와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전귀연(2016). 맞벌이 부모 간 아버지 양육참여의 지각차이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5), 487-498.
- 김진경(2014). 부모기 전이에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1), 1-17.
- 노성향(2014).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45-59.
- 문성주·김성길(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연구**, 3(3), 1-16.
- 문영경(2012). 사회적 지원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65-177.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11), 109-122.
- 박성덕·서연실(2016). 어머니가 인지한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193-212.
- 서미정(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및 모의 자아인식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2(6),

107-121.

- 서석원·이대균(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2), 135-158.
- 서정아·엄정애(2016).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0(2), 419-447.
- 안재진(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8.
- 양진희·김영철(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인과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2), 33-57.
- 연은모·윤혜옥·최효식(2015a).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 93, 1-29.
- 연은모·최효식·윤혜옥(2015b).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5(3), 171-195.
- 연합뉴스(2016.2.23.). 맞벌이 아내, 양육시간 남편의 2.6배... "사회가 변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3/0200000000AKR20160223158200033.HTML>. HTML에서 2016년 10월 8일 인출.
- 옥경희·천희영(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유우영·최진아·이숙(199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숙희·고인숙·최향숙(2003). 현대부모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윤주·김진숙(2012).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정윤·장미경(2008). 기혼여성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부모역할 자긍심의 매개 및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9(2), 339-352.
- 임현주·최향준·최선녀(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 양육특성에 미치는 변인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83-106.
- 조복희·양미선(200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우울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5(1), 79-87.

- 최향준·조수경·김미정(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심리특성을 매개효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383-402.
- 최효식·연은모·권수진·홍윤정(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최효식·윤해옥·연은모(2015). 어머니-아버지 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 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 부부갈등, 우울,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1), 153-174.
- 최효식·윤해옥·연은모(2016).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우울 및 양육태도 간 단기 종단연구 -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 21(3), 253-279.
- 허보윤·한경자(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2), 131-146.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47-65.
- 홍세희(2014). **부부 사이의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성 효과와 자녀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검증**. 한국아동패널 2014 심층분석 연구. 최윤경(편). (pp. 57-76). 육아정책연구소.
- Arditti, J. A., & Bickley, P. (1996). Fathers' involve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post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8(1-2), 1-2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itein*, 107(2), 238.
-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1), 29-40.
- Bollen, K. A., & Stine, R. (199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lassical and bootstrap estimates of variability. *Sociological methodology*, 20(1), 15-140.
- Bronte-Tinkew, J., Moore, K. A., Matthews, G., & Carrano, J. (2007). Symptoms of major depression in a sample of fathers of infants sociodemographic correlates and links to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8(1), 61-9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ook, J.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 Dix, T. (1992). Parenting on behalf of the child: Empathic goals in the regulation of responsive parenting. In Sigel, I. E., McGillicuddy-DeLisi, A. V., & Goodnow, Jacqueline J.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 (pp. 319-346). Hillsdale,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letcher, R. (2009). Promoting infant well-being in the context of maternal depression by supporting the fath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0(1), 95-102.
- Gove, W. R. & Hughes, M. (1979). Possible causes of the apparent sex differences in physical heal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Social Review*, 44(1), 126-146.
- Huth-Bocks, A. C., & Hughes, H. M. (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4), 243-251.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ashy D., Donnellan, M., Burt, S., & McGue, M. (2008). Growth curve models for indistinguishable dyads using multilevel modeling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case of adolescent twins' conflict with their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4(2), 316-329.
- Kelley, H., Berscheid, E., Christensen, A., Harvey, J., Huston, T., Levinger, G., McClintock, E., et al. (1983). Analyzing close relationships. In H. Kelley, E. Berscheid, A. Christensen, J. Harvey, T. Huston, G. Levinger, et al. (Eds.), *Close relationships* (pp. 20-67). New York: Freeman Press.
- Kenny, D., Kashy, D., & Cook, W.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NY:

Guilford.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 Lamb, M. E. (2004).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New York: Wiley.
- Letourneau, C. (1981). Empathy and stress: How they affect parental aggression. *Social Work, 26*(5), 383-389.
- Mallinckrodt, B., Abraham, W. T., Wei, M., & Russell, D. W. (2006). Advances in test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ion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72.
- McBride, B. A., Schoppe, S. J., & Rane, T.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4*(4), 998-1011.
- Mercer, R. T. (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first year. *Nurturing Research, 34*, 198-203.
- Mezulis, A. H., Hyde, J. S., & Clark, R. (2004). Father Involvement Moderates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During a Child's Infancy on Child Behavior Problems in Kindergart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575-588.
- Misri, S., Kostaras, X., Fox, D., & Kostaras, D. (2000). The impact of partner support in the treatment of postpartum depression.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Revue Canadienne De Psychiatrie, 45*(6), 554-558.
- Papp, L. M. (2012).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and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in the context of interparental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99-207.
- Quittner, A., Glueckauf, R., & Jackson, D. (1990).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66-1278.
- Ramchandani, P., & Psychogiou, L. (2009). Paternal psychiatric disorders and children's psychosocial development. *The Lancet, 374*(9690), 646-653.
- Respler-Herman, M., Mowder, B., Yasik, A.,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21*(2), 190-198.
- Roggman, L. A., Moe, S. T., & Hart, A. D. (1994). Family leisure and social support: relations with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Head



- Start pare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3-4), 463-480.
- Tuker, L. R., & Lewis, C. (1973). The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Weitzman, M., Rosenthal, D. G., & Liu, Y. H. (2011).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al or emotional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Pediatrics*, 128(6), 1126-1134.

·논문접수 11월 1일 / 수정본 접수 12월 12일 / 게재 승인 12월 22일  
·교신저자: 홍세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메일 seheehong@korea.ac.kr

## Abstract

###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rents' perception of paternal involvement,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pplication to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using latent growth model**

Sookyong Son, Yoona Jang, Jusung Noh, Sehee Hong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identify the patterns of change in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nd to evaluat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s' perception of paternal involvement on his/her and spouse'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For these goals, we applied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using latent growth model.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First, as children grew, father's parenting stress did not change but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father's and mother's depression decreased. Second, father's and mother's perception of paternal involvement reduced his/her own parenting stress and spouse's stress. Parenting stress increased his/her own depression and spouse's depression. Third, mothers who demonstrated a decline in stress across time also showed a decrease in depression. Fourth, parents' perception of paternal involvement reduced both their own and spouse'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tr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involvement and depres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parents' perception of paternal involvement had longitudinal effects on his/her own and spouse'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Keyword: paternal involvement,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latent growth model, PSKC